제56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 ‘재일(在日)’ 커뮤니티와 민족학교

안해룡 (다큐멘터리 작가)

징병의 역사에 대해 갖고 있었던 기억은 대부분이 교과서를 통한 학습이 많았고,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수년 전 규수 탄광, 조선인 부락 같은 강제 연행 장소를 다녀온 사진을 앨범에 정리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때 아버지가 사진들을 보고선 ‘자신’도 그곳에 가본 적이 있었고 하였다. 이 말에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강제 동원의 역사가 교과에 있는 역사적 사실이 아닌 자신의 가족적 역사이었기 때문이다. 즉 재일의 역사가 자신 속에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호적이 잘못 되어 18세에 부산에서 다른 2000명과 함께 현재의 홋카이도 공항공사에 강제 동원 되었다. 어머니의 경우, 아버지와는 다르지만, 어머니도 일본에서 유시마 소학교를 다녔고, 고모부 역시 재일 역사와 관계가 있었다.

현실에는 교과서와는 다른 이면이 존재 한다.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은 아주 재미있었으며, 제작과정에서 어떤 관점에서 재일 동포의 역사를 한국에 소개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했다. 먼저 정치적 관점에서 쓰는 것은 어떨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민총과 총련이 자신들의 정치적 지향을 표현하므로 대신 써줄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래서 생각한 끝에 재일동포의 생활사를 중심으로 소개하기로 하였다. 재일 동포가 어떤 생활을 하는지 그들의 존재가 즉,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를 소개하기로 하였다. 십 년 가까이 주변을 돌면서 자료를 모으고 문헌자료도 참고를 하였다. 한국·일본에 대한 집단적 연구 가치를 가진 강제 연행 진상 조사단의 자료도 참고하였다.

민족학교는 6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 40년 전에는 300개 정도가 존재했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절망적 위기에 빠져있다. 학생수는 줄어들고 학교는 통폐합이 되어 학교의 수가 매우 많이 줄었다. 현재 초등학교는 60개 정도가 남아있다. 아이치현의 도요하시 초급학교를 방문하였다. 이 학교는 총련에 속해있었다. 1학년의 입학식이 있었는데, 학생들은 자신들의 입학을 기쁜 표정을

한국어로 표현하였다. 학교 교원과 인터뷰를 하였는데, 교원은 학교는 생활의 중심이어서 무엇을 해도 학교에서 하고 학교를 위해서 한다고 하였다. 학교는 독자적 교과서를 편찬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특별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클럽 활동이 있다. 보통 남자는 축구를 하게 되고 여자는 무용을 배운다. 클럽 활동은 초등학교 뿐만이 아니라 중·고등 학교에서도 하루 2시간 이상 축구를 하게 하는 것과 같이 클럽활동을 하게 한다. 도요하시 초등학교의 축구팀은 마지막 대회를 위해 3년간 준비했다고 한다. 항상 졌었기 때문에 지는 것에 익숙했다. 그러나 이제 학생수가 줄어들어 대회에 참가하는 것도 이 번이 마지막이라고 했다.

초등학교에서는 고기 파티도 하였다. 지역의 동포, 조원들이 한데 어우러지고 동질감을 느끼는 장소가 바로 학교인 것이다. 그리고 민족학교는 조국을 배우는 곳이기도 하다 1세대가 자기말을 배우기 위해 만들었던 강습소가 지금은 그의 4세대가 조국을 배우는 곳이 된 것이다.
도요하시 초등학교에는 어머니회가 있다. 이 모임은 23명의 어머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어머니회의 한 행사로서 김치 판매가 있다. 이 김치 판매는 학교 운영의 중요한 재정이 된다. 김치 판매를 1회 실시하면 10만엔의 이익이 생긴다고 한다. 그래서 1년에 6회를 하여 총 60만엔의 이익을 얻는다. 동포들의 수가 줄어들어 김치를 동포들의 소비에만 의지할 수 없게 되어 일본인을 대상으로 팔기도 한다.
지금의 민족학교는 예전과 달리 공개 수업을 하기도 한다. 다큐멘터리 속에도 일본의 시·평의원 및 교육관계자가 방문하는 장면이 들어있다. 이 방문에서 학교측은 학교의 역사, 교과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자신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방문자에게 전달하였다. 아이치 현에는 5개의 민족학교가 있다. 20년간 보수 공사도 없었고, 보조금도 없었다. 학력과 기부금에는 뿌리 깊은 차별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족학교가 처음 설립 될 당시에 학교들은 학교로서의 틀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다. 한국어 강습소와 같은 곳으로 언젠가 조국에 돌아갈 것을 대비하여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되면서 학교로서의 시스템을 갖게 되었다. 또한 한국전쟁과 같은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들도 생기게 되었고, 조선 학교는 지금의 총련의 하부조직이 되었다. 총련은 교육 방침을 바꾸어 조선학교를 조국 연구실로 이용하였고 김일성 연구소가 생기기도 하였다. 도요하시 학교에도 연구소는 존재했으나, 지금은 창고로 쓰이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에 김일성의 초상화는 없다. 그러나 교원실에는 아직 존재한다. 고급학교는 총련 밑에 소속되어 국가와의 노선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 있다. 또한 재일동포를 위한 일꾼을 만들어 내는 곳이고 민족성주체를 강조기도 한다. 무술을 가르치기도하고 인공기가 걸려

있기도 하며 상장에 김일성의 이름이 들어가기도 한다.
현재 민족학교들은 일본 사회와의 교류를 확대하려고 한다. 그리고 한국와의 교류도 생기고 있다. 하지만, 한국인은 민족학교를 방문할 수 있지만, 민족학교의 교원은 자신의 의지로 한국에 올 수 없다.

민족학교 설립 당시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만약 보조금을 받는다면 일본 정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아야 하고 일본 수업 과정을 새로 써야 한다. 이것은 반대로 차별이 민족학교를 강하게 만들어 주고 아이덴티티를 강하게 만들어 준 것이다.
총련에는 두 개의 주요 기관이있었다. 금융기관과 학교였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부정 행위로 무너지고 지금은 학교만이 남아 있다. 이 현실이 총련으로 하여금 학교에서 손을 때는 것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든다. 조선학교의 경우에도 설립 과정이 그다지 깨끗하지 만도 않다. 불법 점유를 하여 시위·교섭으로 확보하였고, 회계에 대한 사항에서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다. 돈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할 만큼 비정상적인 일들이 많이 있다. 일본 공안이 문제점을 파악하면 정상적인 것들이 남을 것이 없을 만큼 많이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학교 밖에서 볼 때는 강탈의 역사일 수도 있는 것이다.. 즉, 근본적 문제가 해결 되지 않은 것이고, 정지적 관계가 개입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조선학교의 존재성은 약화되어 가고 있다. 차별이 많이 줄어들고 조선학교의 교육의 질이 낮아져 조선학교에 갈 명분이 점차 줄어든 것이다. 민족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로서 총련 조직의 상층부를 들 수 있다. 동북아 국제 정세가 변하고 있지만, 상층부는 변하고 있지 않다. 한국 고교와의 교류가 있어도 조선학교의 학생들은 한국에 교류를 위해 방문을 할 수 없고 민간으로부터의 지원금을 공작금의 가능성이 있다며 거부하기도 하며 우토로 사건과는 달리 한국 정부에 대한 개방을 꺼리고 있다.

현재 조선학교에 조선족과 통일교의 자녀들의 입학이 조금이나마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서 ‘장군님’과 같은 표현 등에 대한 교육이 교원들 사이에서 문제가 된다. 또한 한류의 영향으로 남한의 발음을 학생들이 교원보다 빨리 배우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조선학교는 뉴커머를 받아줄 체재가 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정치가의 구호일 뿐 실제 뉴커머를 받아줄 체제는 준비되지 않았다. 학교는 생활 문화 중심의 공간으로 여전히 전통적 역할(운동회, 어머니회, 결혼식, 동창회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총련 조직의 일꾼을 재생산하는 교육 공간이기도 하다. 실제 학교 이외의 총련 기구는 모두 무너졌고, 학교가

생활·문화의 공간이기 때문에 아직 존재한다. 조선학교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학교 좋죠, 우리말 하니까 좋죠’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이다. 왜 좋은 학교인데 학교수가 줄어드는가. 돈이 문제가 아니다. 학부모는 일본 사회에 사는데 지장이 없고, 더 좋은 질의 교육을 원한다. 일본 사회도 변화하였다. 차별이 점차 줄어들었고, 3·4세의 영향으로 학교도 적극적 진출을 시도게 되었다. 거리감을 유지하고 일본 사회로서의 독립에서 변화하여 적극적 교류와 공생의 지혜가 요구되게 된 것이다. 즉, 동북아 정세와 현실에 맞추어 학교가 총련에서 독립하는가와 새로운 형태의 이념이 필요해진 것이다.

조선학교를 연구할 때 이를 민족개념으로 봐선 안 된다. 그리고 총련과 민단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 총련은 자발적으로 생겨 난데 반해, 민단은 한국 정부로부터 자금을 받으며 총련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구는 현장에 가서 실증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현장에 가지 않고 문헌 정보를 이용하지만, 이는 문헌의 되풀이일 뿐이고 개인의 역사를 직접 알아내기는 힘들다. 조직에 대한 역사보다는 개인의 역사를 끄집어 내어 진상을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직접 가서 조사하여 얻는 정보가 지름길이다.

.